

美 오바마, 이라크 내전 '제한적 공습' 가닥

'외교실정론'에 소극적 대응 비판 여론 부담

과도한 개입엔 종파戰 우려 ... 효과는 미지수

또다시 중동의 화약고로 떠오른 이라크 내전사태를 놓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미 이라크에 대해 '책임있는 종전'을 했다고 선언한 마당에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기도, 그렇다고 다시 발을 깊숙이 들여놓기도 어려운 딜레마 형국인 탓이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일정한' 군사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외교실정론'이 부각되고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간선거 국면에서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 상황을 그대로 놔둘 경우 지난달 말 웨스트포인트 연설을 통해 제시한 신(新) 오바마 외교독트린이 초장부터 빛을 바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외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해 근본적 회의론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상군 투입과 같은 과도한 개입은 국내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고민이 있다. 자칫 이란과 시리아, 터키 등 인접국까지 얽혀들면서 중동전역의 종파전쟁으로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개입의 형태를 '공습' 쪽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게 백악관 동향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내전에 직접 휘말리지는 않으면서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수준에서 군사개입을 하겠다는 의의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금주 중 펜타곤에서 다양한 공습 시나리오를 보고받고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수일 내에 국방부가 몇가지 옵션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라비아해 북부에서 작전 중이던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호가 걸프 해역으로 이동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공습을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점이다. 독자적 리더십을 보이는 시아파 알말리키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를 피하고 종파간 화합을 도모하는 쪽으로 중재력을 발휘하려는 의도가 읽히고 있다. 이라크 내전사태를 근원적으로 종식하려면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파갈등을 완화하는 정치적 화합조치가 필요하다는 워싱턴 내부의 상황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급진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이라크 정부군 1700명을 처형했다고 15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사진은 14일 반군 웹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ISIL 반군이 티크리트 지역을 점령한 후 포로로 붙잡힌 이라크 정부군 병사들을 끌어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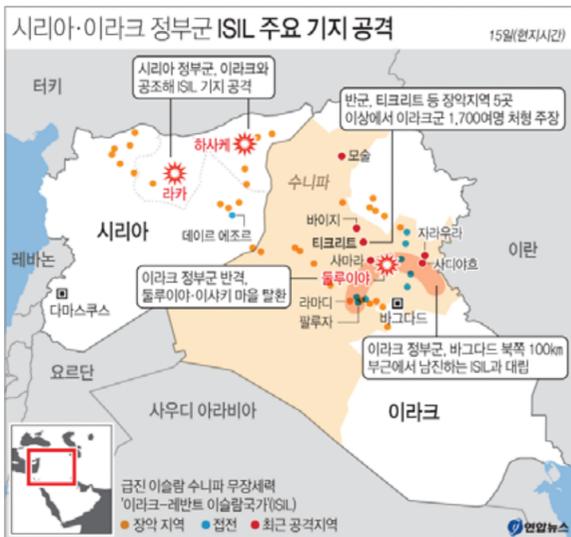
이에 따라 미국은 알말리키 정권이 수니파를 상대로 일정한 화해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습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공습은 제한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미국의 국가안보가 직접 침해받는 수준의 무력분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동맹·우방국들과의 협조 하에 군사개입을 하는 '다자주의적 개입'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미국의 공습행위가 뜻하지 않게 중동전역의 도화선으로 변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아무리 제한적인 형태로 공습을 하더라도 급진 수니파 세력이 이에 자극받아 더욱더 강력한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알말리키 정권의 정치적 화해 제스처도 현 상황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있다.

특히 이라크의 중앙은행이 위치한데다 무기 등이 다량 보관된 모술이 수니파 급진세력에 함락된 점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우려스런 대목이다. 같은 수니파인 시리아 반군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방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지난해 시리아 군사개입 여부를 놓고 궁지에 몰렸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더욱더 헤어나오기 어려운 수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IL' "정부군 1700명 처형"

이라크에서 봉기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정부군 1700명을 처형했다고 주장했다.

ISIL은 수십 명이 끌려가거나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트위터에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CNN, 폭스뉴스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SIL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1400명의 반군을 살해한 것을 뛰어넘는 근대 최악의 학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 ISIL에 맞서는 이슬람 시아파의 보복 공격을 불러 이라크 내전의 성격이 대량학살 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사진은 살라후딘주의 티크리트 등 반군이 장악한 지역 5곳 이상에서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마다 20~60명씩의 손이 뒤로 묶여 처형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끌려가거나 머리에 피를 흘리며 땅에 엎드려 있다. 미국 국무부는 ISIL의 이 같은 처형 주장에 대해 "끔찍하다"며 이는 ISIL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라크 정부 측은 처형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 정부는 수도 바그다드 북쪽 100km 부근에서 남진하는 ISIL을 막기 위해 같은 시아파인 시리아 정부 측과 공조하고 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시리아 공군이 15일 이라크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북부 라카주(州)와 북동부 하사케 등의 ISIL 기지들에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라크 정부군도 반격에 나서 지난 24시간 동안 반군 무장세력 297명을 사살했다고 정부군 대변인이 현지 언론에 말했다. /연합뉴스

워터게이트 특종 현장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주차장 건물 재개발 계획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특종의 중요 현장인 주차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 주차장은 워싱턴포스트(WP)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딥 스토트'(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닉슨 대통령 측이 재선을 위해 불법도청을 하려 했다는 결정적 정보를 받은 장소다.

WP는 버니지아주(州) 알링턴 카운티가 주차장이 위치한 건물 두 동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14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1965년 지어진 12층짜리 이 건물은 각각 28층 주거용 건물과 24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다시 지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상업용 사무실-주거용 건물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개발사와 카운티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빌딩의 1층에 있는 주차장은 완전히 사라진다. 다만, 개발사 측은 지난 2011년 세운 워터게이트 기념표지판은 보존하기로 했다.

우드워드와 추후 신원이 드러난 제보자 마크 펠트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은 이 주차장에서 1972년부터 1973년까지 6차례 만났다. 우드워드의 보도로 공화당인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건물에 위치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 한 것이 발각돼 1974년 결국 사임했다. 현 건물의 철거는 새 건물의 설계 작업이 끝난 뒤인 2017년 1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WP는 전했다. /연합뉴스

중국, 도시화 급속 진행

하루 농촌 100개 사라져

중국에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도시에 진출하는 농민공이 늘어나면서 하루에 100여 개의 농촌 마을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말단 행정 조직인 촌(村)은 지난 1990년대 180만여 개였으나 2010년에 94만 개로 약 절반으로 줄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현지 시간)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인용, 보도했다. 농촌 마을이 하루에 100개, 1년에 3만여 개 사라지는 셈이다.

인민일보가 최근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 윈난(雲南) 등 3개 성내 농촌 실태를 탐사 취재한 결과 상당수 농촌에서 청장년층은 대부분이 농민공으로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는 어린이와 노인들만 남아 인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지 정부들이 농촌 마을 통폐합에 나서면서 촌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농촌 마을 감소는 현대화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중국에는 농민에게 토지 소유권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또 중국은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였고 농촌과 농민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농촌 마을 감소는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즉시입주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개장터, 생계사, 화원사, 노고단 근접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010-4451-6686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28평(26실) 9800만원	40~50%정도
56평(1실) 1억9600만원	대출가능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후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